| 제 113회 문산수억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 간 사 | 위원장 | 학교장 |
|---|---|---|---|
| | | | |

# 회 의 록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11:10 ~ 12:00 (장소 :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실)

## 의사 일정(안건)

- 심의안건 -

1.[1학년부] - 2022학년도 신설교과목(교과서) 개설 및 주문형 강좌 운영 계획

2.[교육기획부] -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을 위한 학교 통학버스 운영 계획(2학기)

3.[교육기획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안내

4.[교육기획부] - 2021학년도 학사 일정 수정안

5. [교육기획부] - 9월 6일 이후 4단계 시 전면등교 여부에 관한 건

| 참석위원( 9 명) |
|---|
| 이00, 백00, 김00, 정00<br>박00, 신00, 백00, 김00, 이00 |
| 참석 교직원( 4 명) |
| 이00, 조00, 박00, 채00 |

<회순>
1. 학교장 인사
2. 개회
3. 안건토의
4. 폐　회

◆ 대외복지협력부장(조00)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셔서 불참하신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제외한 모든 위원님이 참여하셨으니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장선생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교원위원(이00)
안녕하십니까. 2학기부터는 상황이 괜찮아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에서는 급식실 식탁을 3면 칸막이로 바꾸고, 에어컨도 지원받아 바꾸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 부위원장(백00)
안녕하십니까.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00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불참하셔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13회 문산수억고 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건이 총 5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안건인 '2022학년도 신설교과목(교과서) 개설 및 주문형 강좌 운영계획'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1학년부장(채00)
2022학년도에 신설교과목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8월 23일까지 신설교과목 관련된 사항을 제출해야 하는 관계로 이렇게 회의에 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사관으로 진로를 찾는 학생들이 많아 수요조사를 해보니 13명 정도가 부사관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졸업생 중에서도 부사관으로 진로를 정학 학생들이 많은 것을 보면 학교에서 지원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사관 임용반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부수적으로 국가보훈처랑 충남대학교에서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승인받으려면 교육 인가된 시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2013년에 호국영웅 정신계승 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교과서를 같이 편찬을 하자고 연락이 와서, 교과목을 개설하는 겸 교과서도 함께 편찬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개설 교과가 나라사랑과 보훈입니다. 저희가 또 통일, 평화, 보훈 이쪽으로 강화된 학교이기 때문에 교과목을 개설하면 진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교과에서 교양 교과로 1년 2단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문형 강좌로 운영하겠습니다.

◆ 부위원장(백00)
1학년부의 '2022학년도 신설교과목(교과서) 개설 및 주문형 강좌 운영 계획' 제안 설명에 이의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위원(박00)
수요조사로 13명의 학생이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이 학생들이 한 반에 모이는건가요?

◆ 1학년부장(채00)
네, 무학년제 무계열로 개설됩니다. 현재 주문형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데 학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참여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 부위원장(백00)
또 다른 이의나 의문 사항 있으신가요?

◆ 위원들(모두)
없습니다.

◆ 부위원장(백00)
없으시면 첫 번째 안건 1학년부의 '2022학년도 신설교과목(교과서) 개설 및 주문형 강좌 운영계획'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두 번째 안건 교육기획부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을 위한 학교 통학버스 운영계획'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획부장(백00)
안녕하세요. 백00입니다. 통학버스 관련 전체적인 일정은 2월에 연간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계약을 학기 단위로 했기에, 이번에도 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버스는 8월 18일에 계약을 했고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통학버스를 이용하겠다는 학생 수가 늘어 등교는 3대 운행, 하교는 1대 운행 예정입니다. 비용은 1600원으로 45명이 다 차면 50,000원에서 60,000원 정도입니다. 33명 이상 탑승을 해야 원활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뉴신일관광과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데, 학교 측 학사일정을 미리 통보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학기에도 그대

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작년 같은 경우엔 파주천연가스발전소에서 지원금이 나와 학생들이 30명 이하여도 지원금을 보태 운행을 해달라 해서 운행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부터는 지원금의 용도를 장학금으로만 한정시켜서 약간의 불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운행이 작년과 다름없이 똑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등교는 110명, 하교는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할 때 취소가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고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걱정이 있으실까 말씀드리자면 통학버스를 타기 전, 체온 측정을 하고 전염병의 위험이 없는 학생만이 탈 수 있기에 감염에 대한 우려도 줄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백00)
교육기획부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을 위한 학교 통학버스 운영계획' 제안 설명에 이의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모두)
없습니다.

◆ 부위원장(백00)
없으시면 두 번째 안건 교육기획부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을 위한 학교 통학버스 운영계획'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교육기획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안내'와 네 번째 안건인 '2021학년도 학사 일정 수정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획부장(백00)
3번째 안건은 학사일정 변경에 대한 보조자료입니다. 3번 안을 참고하여 4번 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번복되어 7월 7일에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안에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1월 1일 신정이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빠져 1월 6일 예정이었던 동계방학식이 1월 4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 190일 이상 운영해야 하는 수업일수가 192일이 됩니다.

◆ 부위원장(백00)
교육기획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안내'와 '2021학년도 학사 일정 수정안' 제안 설명에 이의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모두)
없습니다.

◆ 부위원장(백00)
없으시면 교육기획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안내'와 '2021학년도 학사 일정 수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 교육기획부의 '9월 6일 이후 4단계 시 전면등교 여부에 관한 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위원(이00)
이번 안건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학을 하고 9월 6일 이후의 일정이 교육부에서 다르게 진행하도록 지침이 왔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9월 3일까지는 3단계일 때는 3분의 2나 전면등교 중 선택, 4단계일 때는 3분의 2만 등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9월 6일부터는 3단계일 때는 무조건 전면등교, 4단계일 때는 3분의 2나 혹은 전면등교를 교육공동체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해 학사 일정을 결정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9월 6일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3학년의 경우 백신을 2차까지 완료했지만, 1학년, 2학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침에 학교에 와 가장 먼저 백신 상황 파악을 하는데, 학교에서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 2학년 교실 같은 경우 아무리 통제를 한다고 해도 확산이 된다면 순식간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엔 3학년 수능이 끝난 후엔 1, 2학년을 전면등교 시켰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1차 지필이 끝나면 금방입니다. 크게 변동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가능하면 전면등교를 하라고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오는 것이 우려가 되는 학생들을 위해 가정학습 기간을 57일로 늘렸습니다. 주말을 빼고 나면 3달입니다. 코로나19 전면등교 관련하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학교를 보내야 한다와 학교도 위험하다로 갈리고 있는데, 학교장으로서 여러 의견이 듣고 싶어서 위원님들께 여쭤봅니다.

◆ 학부모위원(박00)
3학년이 가정학습을 하고, 1학년과 2학년만 나오는 건 안되나요?

◆ 교원위원(이00)
네, 그렇게는 안됩니다. 3학년을 갑자기 학교에 못 나오게 한다면 큰일이 납니다. 현재 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대학 수시 접수를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계속하여 의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3은 밀집도 제외라 오게 해야 합니다. 1학년과 2학년이 전면등교를 하느냐, 아니면 3분의 2 등교 체제를 유지하느냐에 관한 의견을 내주시면 됩니다.

◆ 학부모위원(박00)
저는 사실 전면등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 집중도 못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나가서 돌아다니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때 학교가 가장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방침에 따르겠지만, 제 의견은 전면 등교하는 쪽입니다.

◆ 학부모위원(신00)
저는 2학년 학부모로서, 현재 아이들이 수험생이라는 자각이 없고 그저 학원 숙제만 하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학업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공교육의 부재라고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아이를 보면 주변에서 계속 피시방에 가자고 연락이 오고, 카페나 식당에 가자고 낮에도 언제든 연락이 오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 상황에 안전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 처지에서 누구는 나가서 노는데 나는 왜 집에 있어야 하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분위기가 더 망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학부모위원(박00)
다른 학부모회 분들과도 이 사안에 관해 이야기해보았는데, 당연히 3분의 2 등교를 하자고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학교가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학교 활동에 참여도가 높은 분들의 의견은 대부분 전면 등교하는 것에 기울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원위원(이00)
네,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모두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어느 선택을 하든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네요. 지금처럼 확진자가 2,000명 이상씩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전면등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 2주라는 시간이 남았으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결정 사안인 만큼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백00)
네, '9월 6일 이후 4단계 시 전면등교 여부에 관한 건'은 교장선생님께서 의견을 수렴하고 상황에 맞게 다시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총 4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전면등교 관련 논의도 해보았습니다. 모두 몸조심하시고, 다음 회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13회 학교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